

#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23년 12월 27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배포시부터 취급 가능

## 제 목 : 2023년 4/4분기 중 호남권 경제동향 모니터링 결과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전북본부 및 목포본부가 지역내 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동향 모니터링 결과, **4/4분기 중 호남권 경기**는 3/4분기 대비 **소폭 개선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은 석유화학 및 조선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
  - 수요 측면에서는 **설비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수출**은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등이 늘면서 **증가**
    - 특히 석유제품은 정유사의 가동률 상승 등으로 증가
  - 10~11월 중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 월평균)는 **전남 건설업 증가폭 축소** 등으로 3/4분기 대비 **증가세가 둔화**
  - 10~11월 중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월평균)는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였고,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로 3/4분기 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상승 전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 붙 임 : 1. 최근 호남권 경제 동향  
2. 전국 권역별 경제 동향(요약)

문의처 : 경제조사팀 박범기 · 김지은 과장, 선진산 조사역

Tel : (062)601-1073 Fax : (062)382-8164 E-mail : gwangju@bok.or.kr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gwangju>)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붙임 1> 최근 호남권 경제 동향

4. 호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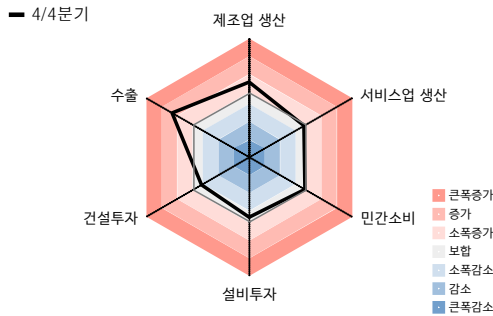
(1) 개황

호남권 경기 소폭 개선

4/4분기 중 호남권 경기는 전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이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은 증가하였으며 민간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10~11월 중 취업자수는 3/4분기에 비해 전년 동기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10~11월 중 소비자물가는 3/4분기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상승 전환하였다.

경기 레이더<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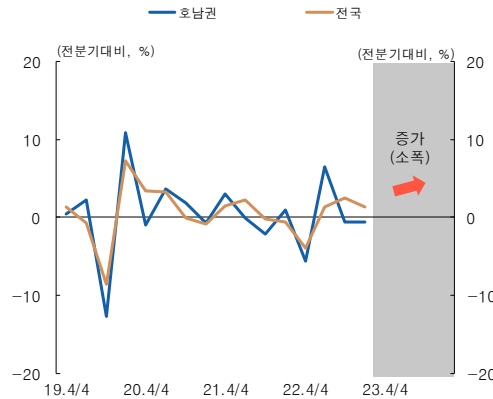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산

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3/4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과 조선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은 소폭 감소하였다. 석유정제, 자동차 및 철강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석유화학은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수출 회복에 따라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조선은 수주량이 양호한 상황에서 인력 수급 상황이 개선<sup>1)</sup>되며 생산량이 소폭 증가하였다.

전자부품은 3/4분기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가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1) 현대삼호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최근 해외인력 유입으로 인력 수급 상황이 개선된 데다 국내인력 유입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유정제는 정제마진이 축소<sup>2)</sup>되었으나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감소<sup>3)</sup> 등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자동차는 SUV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업체의 공장 가동 중단<sup>4)</sup> 등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철강은 자동차와 조선이 양호한 업황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 기계 등의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 보합세를 보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4/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부품은 반도체 공장의 국내 이전<sup>5)</sup>, IT 경기 회복 등으로 생산물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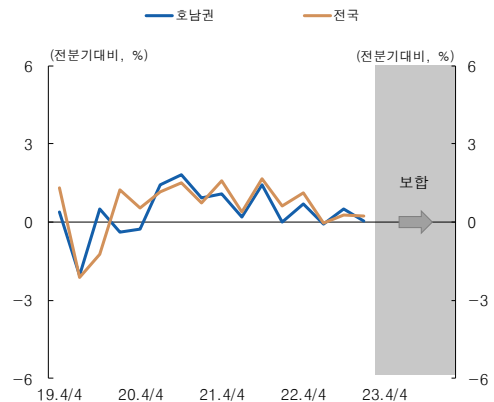
석유정제는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동절기 기온이 비교적 온난할 것으로 예상<sup>6)</sup>되어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 가동률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사업 구조조정<sup>7)</sup>을 진행함에 따라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내수 부진,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철강은 중국의 부동산 등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대외수요 둔화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은 그간 충분한 수주잔량이 확보<sup>8)</sup>되어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비스업 생산 보합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이 증가하였고 운수업도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도소매업은 감소하였고 부동산업과 숙박·음식점업도 소폭 감소하였다.

###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0)</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절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전국체전 개최<sup>9)</sup> 등으로 방문자<sup>10)</sup>가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운

- 2) 석유정제업체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9월 16.9달러/배럴에서 11월 셋째 주 기준 6.4달러/배럴로 하락하였다.
- 3)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이 자국 내 수요, 제한적인 수출 쿼터, 낮아진 수익성 등으로 감소하였다.
- 4)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11월 7일 협력업체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9일에 정상 조업을 재개하였다.
- 5) 오디텍은 중국 남경공장의 국내(전라북도 완주군) 이전을 2022년 말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2023년 4/4분기 중 관련 설비투자를 완료할 예정이다.
- 6) 기상청,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등이 엘니뇨로 따뜻한 겨울 날씨를 전망하면서 난방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7) 석유화학업체는 저수의 범용 제품의 비중을 축소하고 이차전지, 태양광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확대하는 등 사업 개편을 추진 중이다.
- 8) 호남권에 위치한 국내 대형 조선사(현대중공업, 대한조선)의 11월 말 수주잔량은 707만CGT이며, 2023년 중 총 182만CGT가 인도될 예정이다.
- 9)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3일에서 19일까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1월 3일에서 8일까지 전라남도 목포 등지에서 개최되었다.
- 10) 10월 중 호남권 방문자 수(외지인 기준)는 2,759만명으로 3/4분기(2,590만명, 월평균) 대비 6.5% 증가하였다.

수업은 수상운송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sup>11)</sup>하였으나 항공운송 물동량이 증가하고<sup>12)</sup> 항공 운항편수<sup>13)</sup>가 늘어나면서 전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부동산업은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sup>14)</sup>이 소폭 늘어났으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sup>15)</sup> 소폭 감소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주류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부담이 높아지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도소매업은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sup>16)</sup>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sup>17)</sup>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숙박·음식점업은 주세 인하<sup>18)</sup>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운수업도 수출 물동량 회복이 지속되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소매업 역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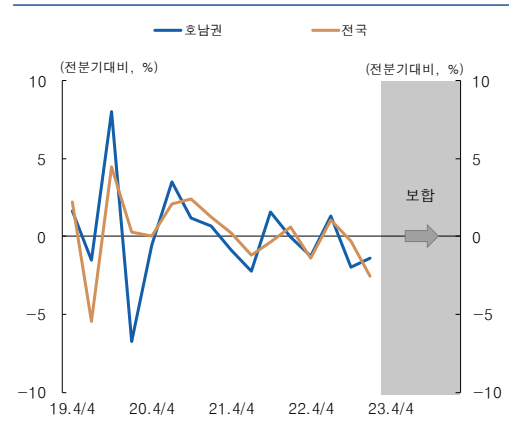
부동산업은 주택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로 인하여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3) 수 요

#### 민간소비 보험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3/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sup>19)</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회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는 가전<sup>19)</sup>이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판매가 SUV 신형 모델 출시<sup>20)</sup>와 코리아세일페스타<sup>21)</sup>로 늘어나면서 증가<sup>22)</sup>하였다. 준내구재는 명품 소비가 위축되

11) 10월 중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16.4만TEU로 3/4분기(16.4만TEU, 월평균)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12) 10월 중 호남권 공항(광주, 여수, 무안, 군산)의 운송화물은 1,668톤으로 3/4분기(1,218톤, 월평균) 대비 36.9% 증가하였다.  
13) 10월 중 호남권 공항(광주, 여수, 무안, 군산)의 운항편수는 1,995편으로 3/4분기(1,702편, 월평균) 대비 17.2% 증가하였다.  
14) 10월 중 호남권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은 16,433호로 3/4분기(16,110호, 월평균) 대비 2.0% 증가하였다.  
15) 4/4분기 호남권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916호로 3/4분기(5,935호) 대비 17.2% 감소하였다.  
16) 11월 중 광주전남의 소비자심리지수는 89.3으로 3/4분기 말 대비 3.2p 하락하였다.  
17) 지역 내 백화점 모니터링 결과, 방문객 수는 증가한 반면 명품 등 고가 상품군의 침체가 지속되어 객단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기획재정부는 12월 1일 주세 기준판매율을 도입하여 국내 주류에 적용되는 주세를 인하하는 방침을 입법예고하였다.  
19) 10~11월 중 호남권 가전제품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3/4분기(월평균) 대비 13.0%, 전년동기대비(월평균) 대비 3.9% 감소하였다.  
20) 기아자동차는 올해 11월 중 '더 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를 출시하였다.  
21) 11월 11일부터 시작된 코리아세일 페스타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총 31종의 차량(현대자동차 23종, 기아자동차 8종)을 할인 판매하였다.

었으나 레저용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비내구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용 연료<sup>23)</sup>를 중심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4

업체별로 보면 대형마트 매출은 코리아세일 페스타 등 연말 할인행사가 늘어나며 증가하였으나 백화점 매출은 명품을 중심으로, 슈퍼마켓 매출은 주류를 중심으로 전분기에 비해 감소하였다.<sup>24)</sup>

서비스 소비의 경우 골프장 등 레저시설 이용<sup>25)</sup>은 늘었으나 연휴 기간 중 해외여행 증가, 주류가격 인상 등으로 숙박·음식점업이 감소하면서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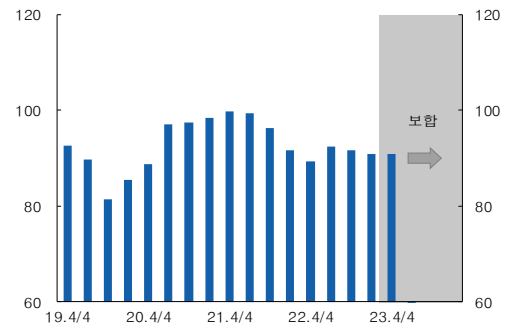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세제혜택 확대, IT경기 회복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4/4분기보다 재화 소비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해외여행 증가 등이 증가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 설비투자 포함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석유정제, 석

유화학, 철강 등 대부분의 업종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설비투자실행BS<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석유정제, 석유화학 및 철강은 기존 신증설 투자 계획<sup>26)</sup>에 따라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환경, 안전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자<sup>27)</sup>도 진행 중이다. 조선<sup>28)</sup>은 수주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작업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는 일부 업체<sup>29)</sup>가 전기차 생산을 위해 생산시설을 구축하였다.

22) 10~11월 중 호남권 내구재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3/4분기(월평균) 대비 30.0%, 전년동기대비(월평균) 0.1% 증가하였다.  
 23) 10월 호남권 휘발유 소비량은 84.7만배럴로 3/4분기(84.3만배럴, 월평균) 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24) 10월 중 호남권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1% 감소하며 3/4분기(-10.6%)보다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7.8% 증가하며 3/4분기(5.1%)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25) 10~11월 중 호남권 레저업소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3/4분기(월평균) 대비 6.3%, 전년동기대비(월평균) 0.6% 증가하였다.  
 26) LG화학은 화치단지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재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404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22만톤 규모로 ABS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포스코는 11월 29일 이차전지소재용 수산화리튬 공장고 효율을 전기강판 공장을 준공했다.  
 27) GS칼텍스는 온실가스 감축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130억원을 투자하여 5만톤 규모의 페플라 스틱 열분해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28) 현대삼호중공업은 2023년 중 3,161억원을 시설 투자할 예정인데 지난해 투자액(1,247억원) 대비 153.6% 증가한 금액이다.  
 29) 광주글로벌모터스는 2024년 하반기부터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도록 11월 4일부터 한 달간 전기차 시설물을 설치하고 설비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sup>30)</sup>는 신차 생산을 위해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석유정제<sup>31)</sup>, 석유화학<sup>32)</sup> 및 철강<sup>33)</sup>은 신성장 동력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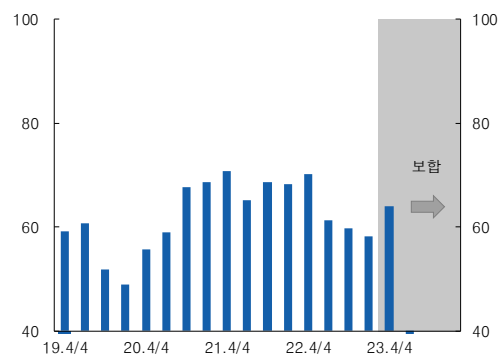
전자부품 등 여타 업종에서는 고금리 지속,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외경제의 불확실성도 증가함에 따라 당분간 노후화 설비 교체 등 유지 보수 수준으로 설비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건설투자 보합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이 소폭 감소하면서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주택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하고 미분양 주택이 감소<sup>34)</sup>하면서 주거용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은 SOC 예산집행액<sup>35)</sup>이 감소하여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 건설업 업황BSI<sup>1)</sup>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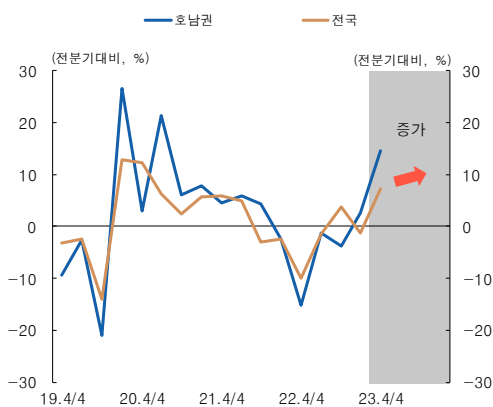
민간부문은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었던 사업장들을 착공하며 소폭 증가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은 건설수주액이 줄어들<sup>36)</sup> 영향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30)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2024년 1월부터 전기차 EV5 생산을 위한 설비 공사를 할 예정이다.  
 31) GS칼텍스는 수소와 폐플라스틱 순환경제 등을 통해 탄소를 감축하고 저탄소 신사업을 발굴하는 등 녹색 전환 전략을 추진 중이다.  
 32) LG화학은 기존 석유화학 중심에서 벗어나 전지소재, 친환경, 신약 등 3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업종 전환 계획을 밝히며 동 사업의 매출 비중을 2022년 21%에서 2030년 5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33) 포스코는 탄소중립 철강 생산을 위해 6천억원을 투자하여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톤 규모의 전기로를 신설할 예정이며 2024년 1월 착공해 2026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34) 10월 말 호남권 미분양주택은 7,380호로 9월 말 7,539호에 비해 159호 감소하였다.  
 35) 10~11월 중 호남권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 집행액(월평균)은 3,889억원으로 3/4분기(4,084억원, 월평균) 대비 4.8% 감소하였다.  
 36) 10월 중 호남권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은 1,540억원으로 3/4분기(월평균) 1,719억원에 비해 10.4%, 전년동월대비 74.0% 감소하였다.

## 수출 증가

4/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3/4분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및 선박은 증가하였고 자동차도 소폭 증가하였으나 반도체는 감소하였다.

수출(일평균)<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석유제품은 정유사의 정기보수 기간 종료에 따른 가동률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은 미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철강은 수출단가 약세<sup>37)</sup>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강재를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증가하였다. 선박은 선가가 건조한 상승세<sup>38)</sup>를 유지하는 가운데 2021년 수주물량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증가하였다. 자동차는 북미를 중심으로 SUV 수출 호조<sup>39)</sup>가 지속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37) 10~11월 중 철강제품의 톤당 수출단가는 1,132달러로 3/4분기(1,177달러) 대비 3.8% 하락하였다.  
 38) 클락슨 선가지수는 2020년 말 125.6에서 2021년 말 153.6, 2022년 말 161.8, 2023년 말 177.1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39) 기아자동차의 10월 스포티지와 셀토스의 수출대수는 각각 10,134대 및 8,786대로 전년동기대비 22.4% 및 1.3% 증가하며 3/4분기(24.4% 및 -0.4%)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40) 2024년 1/4분기 호남권의 선박 인도예정물량은 계약일정상 56.9만CGT로 전분기(21.1만CGT) 대비 169.5%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반도체는 스마트폰 부품을 중심으로 신규수주가 줄어들면서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선박은 인도예정물량<sup>40)</sup>이 늘어나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는 주요 수출시장의 반도체 수요 회복, 수급 상황 개선 등으로 생산물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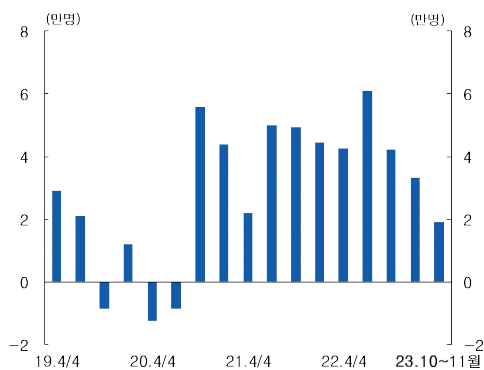
석유제품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미국 고금리 지속에 따른 구매력 감소, 전기차 경쟁 심화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도 중국 경제 회복 지연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4) 고용

#####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월 대비 2.0만명 증가하여 3/4분기(3.3만명)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농림어업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건설업과 서비스업 증가폭은 축소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비임금근로자는 무급가족종사자 감소폭 확대에도 자영업자가 증가 전환하면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감소로 전환하였고, 광주 의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전북은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 취업자수 증가<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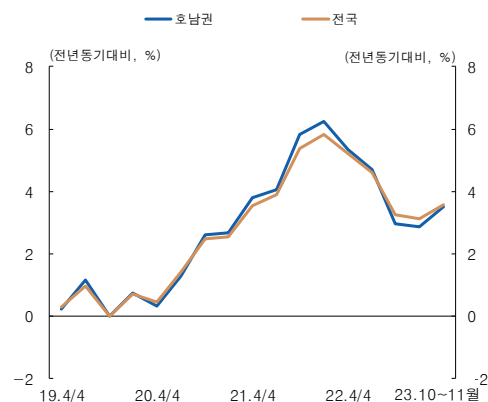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

10~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월평균)은 전년동기대비 3.5%로 3/4분기(2.9%)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상품가격은 국제유가 변동<sup>41)</sup>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과실<sup>42)</sup>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가격의 높은 오름세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서비스 물가는 공공 및 개인서비스 모두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3/4분기 수준의 상승폭을 이어나갔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41) 10~11월 중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전년동기대비 1.5% 하락하여 3/4분기(-11.5%) 대비 하락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42) 10~11월 중 과실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26.3% 상승하여 3/4분기(14.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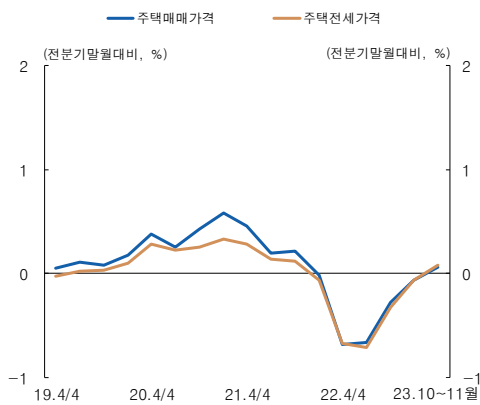
##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 전환

8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 대비 0.06% 오르며 전분기(-0.06%)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였다. 지역별로도 광주, 전남 및 전북 모두 상승 전환하였다.

10~11월 중 전세가격(월평균)도 전분기말월 대비 0.09% 올라 전분기(-0.07%)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였으며, 지역별로도 광주, 전남 및 전북 모두 상승 전환하였다.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sup>1)2)</sup>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 중에서 월 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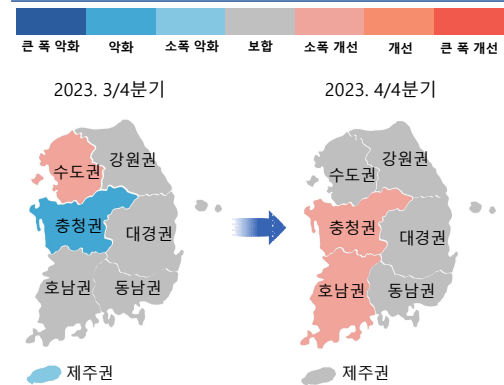
< 붙임 2> 전국 권역별 경제 동향(요약)

1. 경기 개황

2023년 4/4분기 중 지역경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와 디스플레이의 성장세가 이어졌으나 반도체, 조선, 기계장비 등이 전분기 수준에 머물면서 보합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업은 운수, 숙박·음식점 등의 성장과 도소매, 부동산 등의 위축이 엇갈리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충청권, 호남권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나머지 권역은 보합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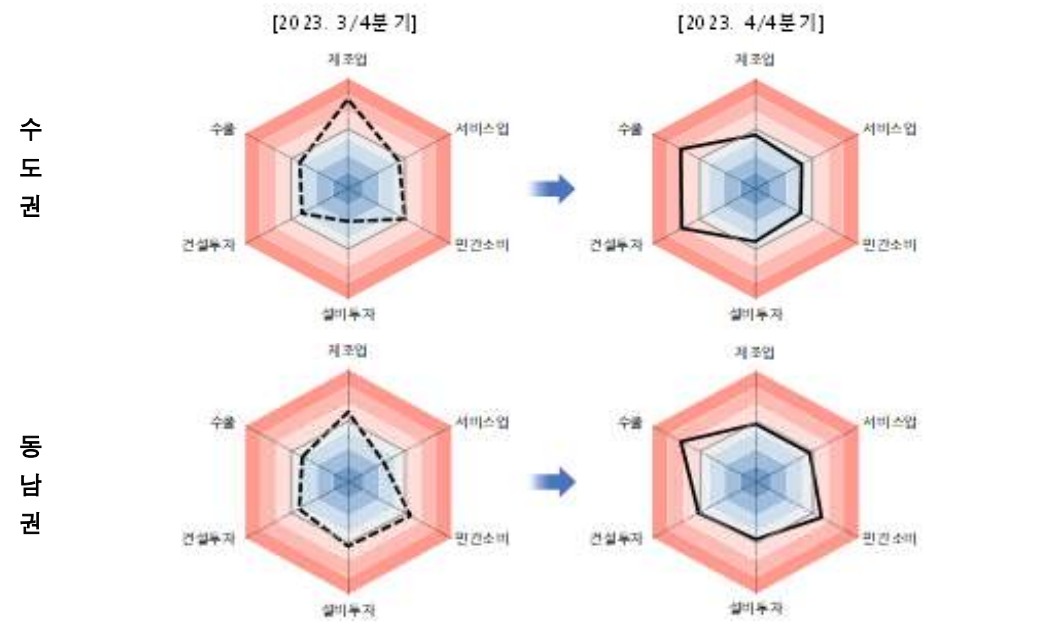
향후 지역경제는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철강 등의 둔화와 석유 정제 및 화학의 부진으로 보합세를 보이겠으며, 서비스업도 운수를 제외한 도소매, 숙박·음식점, 부동산 등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보합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권역별 경기<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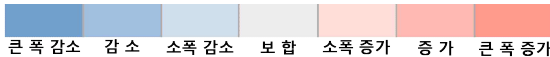


주: 1) 권역별로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모니터링하여 입수한 생산, 수요 및 고용 동향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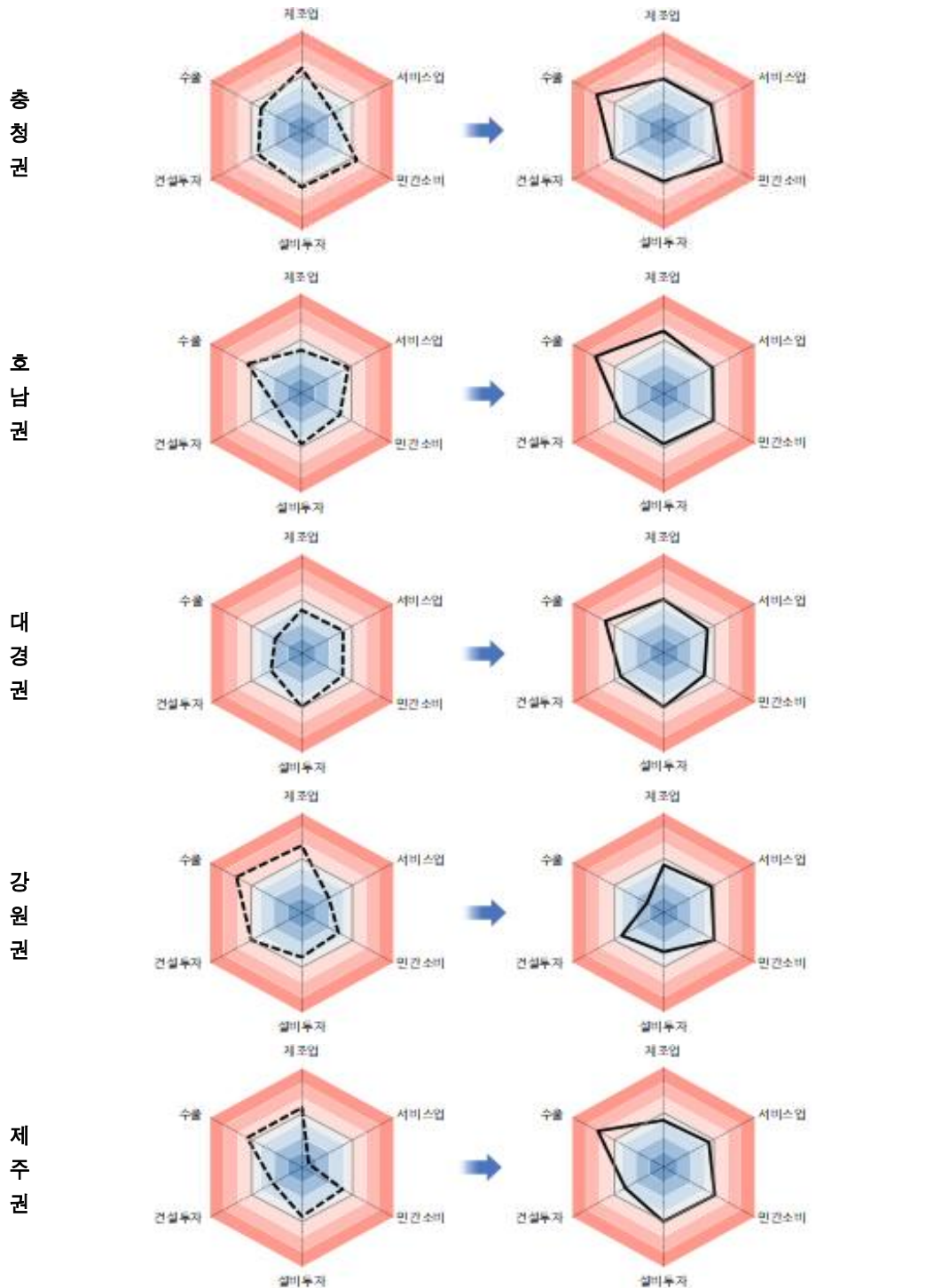
권역별 경기 레이더 추이<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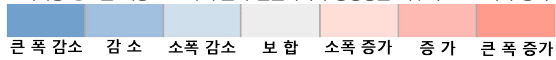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



권역별 경기 레이더 추이<sup>1)</sup>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년기대비 방향성을 자수화(-5+5)하여 평가



## 2. 생 산

### 제조업 생산 포함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한 가운데 중국경제 회복 약화, 국내 투자수요 정체 등으로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이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반도체 생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조선, 기계장비 등은 포함에 머물렀다. 권역별로는 충청권과 호남권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권역들은 포함세를 유지하였다.

### 권역별 제조업 생산<sup>1)</sup>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포함, 감소를 나타냄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IT경기 개선에 힘입어 반도체가 반등하고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이 소폭 성장하겠으나 자동차, 철강·금속 등의 둔화와 석유정제 및 화학의 부진 지속으로 포함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등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동남권, 호남권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서비스업 생산 포함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여객 및 화물 운송수요 증가, 일부 지역 대규모 행사 개최 등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고물가, 주택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수준을 지속하였다. 산업별로는 운수와 숙박·음식점이 개선된 반면 도소매, 금융·보험, 부동산 등은 수요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권역별로는 충청권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수도권

은 소폭 감소하였고 나머지 권역은 포함세를 보였다.

### 권역별 서비스업 생산<sup>1)</sup>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포함, 감소를 나타냄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세계 상품 교역 및 국내외 여행 회복으로 운수의 증가세가 이어지겠으나 소비심리 정체로 도소매, 숙박·음식점, 부동산 등은 부진할 것으로 보여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호남권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동남권, 충청권, 강원권은 소폭 감소, 대경권, 제주권은 포함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4/4분기 중 권역별 제조업·서비스업 생산 동향<sup>1)</sup>

	제조업	서비스업
수 도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 동 차(▲): 국산 친환경차 선호로 수출 증가</li> <li>·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신제품 OLED 패널 공급, 자동차 OLED 시장 본격화</li> <li>·반 도 체(▼): 메모리 반도체 감소 등</li> <li>·의 약 품(▼): 합병에 대비한 생산 물량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 수(▲): 해운 화물, 항공 화물 및 여객 모두 개선</li> <li>·도 소 매(▼): 온화한 기온으로 이너웨어 등 판매 저조</li> <li>·금융·보험(▼): 주식 및 채권 시장 거래대금 감소</li> <li>·부 동 산(▼): 주택매매거래량 감소</li> <li>·숙박음식점(◇): 높은 외식물가에 따른 외식수요 감소</li> </ul>
동 남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 동 차(▲): 북미지역 중심 수출 증가</li> <li>·석유 화학(▼): 중국 생산설비 증설, 일부 업체 정기보수</li> <li>·조 선(◇): 수출물량 건조 지속</li> <li>·철 강(◇): 자동차 생산 증가, 건설경기 위축</li> <li>·석유 정 제(◇): 중국의 석유제품 수요 개선, 미국 등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박음식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대규모 지역축제 개최</li> <li>·운 수(▲):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량 증가</li> <li>·도 소 매(▲): 재화 소비 증가</li> <li>·부 동 산(▼): 주택시장 부진</li> </ul>
충 청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 도 체(▲): 재고조정 효과 가시화, 전방산업 업황 개선</li> <li>·디스플레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회복, 신제품 출시</li> <li>·자 동 차(▲): 신차 수출 증가</li> <li>·철 강(▲): 중국의 감소로 공급과잉 다소 해소</li> <li>·석유 화학(▲): 에틸렌·나프타 스프레드 확대, 중국 경기 부양</li> <li>·전 기 장 비(▼): 유럽지역 보조금 축소 등으로 전차 둔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 수(▲): 여행객수 증가, 해운 물동량 회복</li> <li>·부 동 산(▲): 주택매매거래량 증가</li> <li>·숙박음식점(▲): 대규모 지역행사 개최, 숙박시설 이용객 증가</li> <li>·도 소 매(▼): 고물가 및 고금리로 구매력 약화</li> </ul>
호 남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유 화학(▲): 수출 회복에 따른 가동률 상승</li> <li>·조 선(▲): 양호한 수요량, 인력 수급 상황 개선</li> <li>·전 자 부 품(▼):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 감소</li> <li>·석유 정 제(◇): 정제마진 축소, 대중국 수출 감소</li> <li>·자 동 차(◇): SUV 판매 호조, 일부 업체 공장 가동 중단</li> <li>·철 강(◇): 자동차와 조선의 양호한 업황, 건설, 기계 등 수요 부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 수(▲): 항공운송 물동량 및 항공 운항편수 증가</li> <li>·도 소 매(▼): 소비심리 회복 지연</li> <li>·부 동 산(▼):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li> <li>·숙박음식점(▼): 주류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부담 증가</li> </ul>
대 경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공급 확대</li> <li>·휴 대 폰(▲): 해외사업장 생산물량 증가</li> <li>·철 강(▼): 전방산업 생산 증가세 둔화</li> <li>·기 계 장 비(◇): 전방산업 해외 투자 증가, 내수 위축</li> <li>·자동차부품(◇): 완성차 판매 증가세 지속, 내연기관용 부품 수요 둔화</li> <li>·섬 유(◇): 주요국 수출 감소 그 외 지역 수출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 동 산(▲): 주택거래량 증가</li> <li>·도 소 매(▼): 음식료품, 의복 등 수요 부진</li> <li>·운 수(◇): 항공 운송 증가세 지속, 육상 운송 감소</li> <li>·숙박음식점(◇): 외국인 관광객 증가, 행사 수요 확대, 내국인 관광객 감소</li> </ul>
강 원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선(▲): 해상풍력 발전용 해저케이블 수요 지속</li> <li>·의 약 품(▲): 국내 호흡기 감염병 확산, 보툴리눔독소신 중국 수출 호조</li> <li>·자동차부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완성차 내수 둔화</li> <li>·시 멘 트(◇): 국내 건설경기 둔화, 가차공된 공사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 소 매(▲): 승용차 신규등록대수 증가</li> <li>·부 동 산(▲): 주택 매매거래 증가</li> <li>·숙박음식점(▼): 일본 등 근거리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지역 방문객 감소</li> <li>·운 수(◇): 항공 여객수 증가, 철도 및 버스 이용객수 감소</li> </ul>
제 주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 도 체(▲): 홍콩 등으로부터 5G 통신 기기 수요 확대</li> <li>·식 음 료(▼): 내국인 개별 관광객수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박음식점(▲): 내국인 단체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증가</li> <li>·도 소 매(▲): 온라인 판매 확대, 대규모 할인 행사</li> <li>·부 동 산(▼): 주택매매가격 약보합세 지속</li> <li>·운 수(▼): 국내선 운항편수와 이용객수 감소</li> </ul>

주: 1) ( )내는 전년 대비 방향성을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감소, 보합을 나타냄

### 3. 수 요

#### 민간소비 포함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포함세를 유지하면서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권역별로는 동남권, 강원권 및 제주권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도권과 대경권이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충청권 및 호남권은 포함 수준을 나타내었다.

#### 권역별 소비<sup>1)</sup>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포함, 감소를 나타냄

향후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사정, 가계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회복하겠으나, 고금리 영향 지속 등으로 회복세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충청권 및 강원권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권역은 포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설비투자 포함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서 계획된 투자를 지속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여타 권역은 포함 수준을 나타내었다.

#### 권역별 설비투자<sup>1)</sup>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포함, 감소를 나타냄

향후 설비투자는 IT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전기차 및 이차전지 등 친환경·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및 제주권이 포함 수준을 나타내며, 여타 권역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설투자 소폭 증가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집행 축소 등으로 공공부문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이 증가하여 소폭 증가하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증가하였으며 동남권이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제주권은 소폭 감소하였고, 여타 권역은 포함 수준을 나타내었다.

#### 권역별 건설투자<sup>1)</sup>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포함, 감소를 나타냄

향후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의 신규 수주 및 착공 위축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SOC 예산 증가 등이 감소폭을 제한하여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호남권 및 대경권이 포함 수준을 나타내며 여타 권역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출 증가

4/4분기 중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반도체 가격 상승 전환과 수출물량 확대로 증가한 가운데 기계류,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도 증가하여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동남권, 호남권 및 제주권이 증가하였으며, 충청권 및 대경권은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강원권은 감소하였다.

#### 권역별 수출<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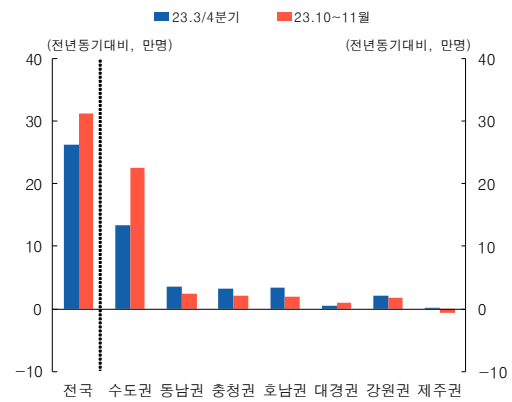
향후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기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증가하며 호남권을 제외한 여타 권역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호남권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고용

####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 전년동기대비)는 31.2만명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3/4분기(26.3만명)에 비해 확대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및 대경권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및 강원권의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제주권은 감소로 전환하였다.

#### 취업자수 증가<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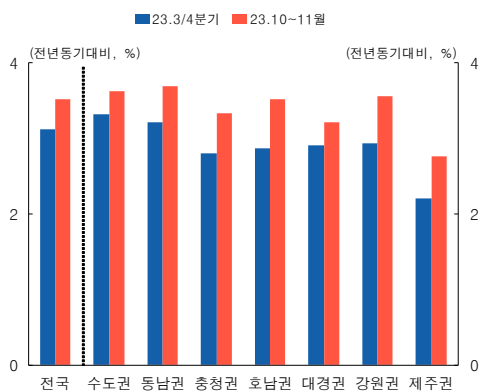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 소비자물가 오름폭 확대

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 전년동기대비)는 기상 악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국제유가 하락폭 축소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모든 권역에서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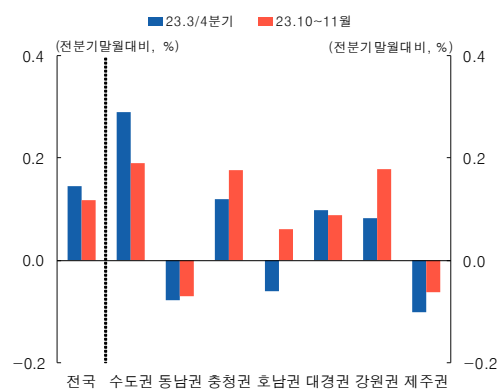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축소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 전분기말월대비)은 수요 증가 정체로 수도권 및 대경권의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충청권 및 강원권의 상승폭은 확대되었다. 반면 동남권 및 제주권의 하락폭은 축소되었고 호남권은 상승 전환하였다.

### 주택매매가격 상승률<sup>1)</sup>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